◇21세기 경희의 위상을 위한 제언 〈3〉

전환의 문턱에서 ·· 이것만은 해결하자

기획취재 폭주하는 요구 더이상 수용할 곳이 없다

지난주 23일(화요일) 오후 2시 서울캠퍼스 노천극장. 이곳에서는 5백여명의 문리대 학생들이 모여 '문리대 교육환경 개선과 공간문제 해결'을 위한 비상총회가 진행되고 있었다. 대학평가제에 따른 공간문제가 집중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 오후 4시30분. 약 2시간30분 정도 자유토론형식의 비상총회를 마친후 학생들은 책임있는 학교 당국자의 답변을 듣기위해 본관으로 향했다.

이렇듯 대학내에서의 공간문제는 문리대 뿐만이 아니라 서울 수원캠퍼스 공히 안고 있는 문제로서 자주 학교와 학생간의 불화를 조성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현재 등록금협상과정에서도 서울의 경우 문리대 공간문제와 취업대책위원회 문제 등의 안건이 협상중에 있으며, 수원의 경우도 정문 및 교양강의동 건설, 자대 증축, 산대·사회대의 전산실 신·확충 사안들이 협상의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다.

서울캠퍼스는 현재 공간문제로 학교와 대립하고 있는 곳은 문리대가 대표적. 2년동안 같곳이 없어 임시사무실만 가지고 있던 전산소의 경우 한의대 4층에 1백여평의 장소를 마련해 입주하기로 했으며, 정경대는 그동안 컴퓨터실이 비좁아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학생들의 불만사항으로 지적돼 오다가 지난 3월 증축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해결됐다. 또한 문리대를 빌려 써 오던 가정대도 지난 2월 기공식을 가져 내년이면 자체 건물을 갖게 된다. 뿐만 아니라 복지회관의 공사도 동시에 이루어 지고 있어 비좁기만 했던 학생회관의 공간문제도 어느정도 해결될 기미를 가지고 있다.

문리대의 경우 그동안 잦은 대건물을 빌려 써 오고 있던 가정대가 내년이면 이전함에 따라 공간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전망이었다. 그러나 화학과가 대학평가제문제로 공간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고 설상가상으로 문리대 뒷편 가건물이 화재로 전소되면서 첨예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학교측은 화학과가 교육부에서 철단학과와 이공계열 학과의 대학별 특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대학평가를 무리없이 받기 위해서는 현재 2개 밖에 없는 실험실을 4개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머지 2개의 실험실을 문리대의 가정대 학생회실이 있는 문리대 1층 좌측을 지목했다. 이곳이 수도와 가스관을 동시에 끌어들여 실험실을 개조하기에는 최적의 장소라는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은 이에대해 '학생회실을 실험실로 개조하는 행위는 학생회를 탄압하려는 행위'로 규정하고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나섰다.

수원캠퍼스의 경우는 서울캠퍼스처럼 공간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은 아니나, 기본적으로는 부족한게 현실이다. 수원캠퍼스의 경우 교지확보율은 92년 현재 4백10.2%로 타 대학에 비해 일반적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강의실을 비롯한 실험습실등 기본 교사시설은 77.9%를 달성하고 있어, 학생정원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다. 더욱이 교수연구실의 경우 대학평가에서 따른 교수확충에 따라 늘어나는 교수들을 수용할 교수연구실이 턱없이 부족해 화장실을 교수연구실로 개조하거나, 학과사무실을 함께 쓰는 등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

한편, 총학생회측에서는 정문 및 교양강의동 건설, 자대 증축, 산대 사회대 전산실 신·확충 등의 문제를 놓고 학교측과 협의 중이나 학교 당국에서는 정문의 신설은 고려중이며, 교양강의동의 경우 도서관 완공 후 최우선적으로 신축할 것이라는 것이 그 핵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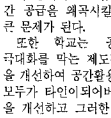
다음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학교측의 주먹구구식의 정책이다. 향후 몇년의 강의를 대비한 강의실의 확보나 교원의 확보에 따른 교수연구실 마련, 그리고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자치실 확보 등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해 나가는 혜안이 아쉽다.

이와같은 현실은 이번 문리대시위를 점화한면서도 나타났다. 문리대의 경우 공대가 수원캠퍼스로 이전해 가면서 주어진 공간의 많은 부분을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학생자치회실로 주어졌다. 그러나 2년전부터 실시된 대학평가제에 따라 이과계열의 학과에 실험실이 모자라 그동안 학생자치회실로 사용돼 오던 공간의 상당부분을 실험실습실과 교수연구실로 바꾼 것이다. 그렇다고 강의실 부족으로 법대에서 1주당 40시간, 정경대 7개강좌(토요일 사용)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에서 강의실을 실험실로 전환시킬 수는 없는 상태에 놓여있다. 현재 학교당국은 가정대 건물이 완공되는 내년이면 문리대의 공간문제는 완전히 해결된다는 낙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해 학생들은 교원의 충원은 계속될 것이고 이에따라 교수연구실 또한 계속 확충될 수밖에 없고 이공계열의 학과에 대한 교육부 평가가 계속될에 따라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하게 돼 결국 가정대가 이전해 가도 상황은 호전될 수 없다는 비관적 견해가 팽배돼 있는 상태다.

세번째 요인으로는 학교당국과 학생 상호간의 불신의 문제다. 상호간에 머리를 맞대고 공간활용의 문제를 의논할 경우 지금보다는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학교측이나 교수들은 학생들이 너무 많은 공간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학생들은 학생들 나름대로 최소한의 자치공간마저도 학교측에서 제공해주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학생들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공간을 어쩌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 통제능력을 잃고 있는 상태에 있다.

요구는 폭주하고 수용능력은 한계에 부딪혀 있고, 진퇴양난이다. 이제는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서로가 한걸음 물러서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 (취재부)

전문가의 말



현재의 우리대학의 전반적인 공간은 특별히게 궁축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엄청나게 부족한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물론 이러한 나의 생각은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데에 따라 달라 질 것이다. 공간이 침대적으로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이며(예를 들면 기숙사) 또한 전문적인 기능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특화된 공간이 부족한 것도 현실이다. 그러나 주어진 공급량을 적절히 이용하기 위하여 '공간에 대한 수요는 과연 제대로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의문시 된다. 공간을 서로 확보하려는 이기주의로 인한(단과대학간에 단과대학내의 학과간에 또한 총학생회와 단과대학 학생회간에 단과대학과 학생회간에 등등) 공간조정의 어려움은 주어진 여건하에서 보다 원활한 공간활용을 할 수 없게 하며 또한 이러한 이기주의가 지배하게 되면 과연 공간이 부족한 것인가라는 의문마저 일으켜 장기적으로 합리적인 공간 공급을 왜곡시킬 수 있는 큰 문제가 된다.

또한 학교는 공간활용의 극대화를 막는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여 공간활용문제에는 모두가 타인이되어버리는 상황을 개선하고 그러한 바탕위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협조를 구하는 체계적 접근을 하여야 하겠다.

박 원 규
〈사회대교수·경영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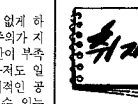
'효율적' 공간이용, 양보가 최우선

끼워팔기 상술은 교양필수

◇…수평선 향해

닻을 올려라! 돛을 달아라! 25살의 혈기왕성한 경희청년호가 파도가르며 나아가나나.

패배도 많았다. 절망도 컸었다. 그러나 또다시 청년호는 파도를 가르고 2만선원 태우고 돈민태풍 휘저어가나, 누르던 탄압들 물보라되는 꼴좀 보게나!



해쳐가세! 해쳐가세! 팔 휘도록 노젓다보면 수평선 너머 새상밖으로 펼어진들 행복하지 않겠나.

◇…푸세식이 더 좋아

"학생회관의 하루시작은 은은한 향기로"

요건 향간에 떠도는 광고멘트는 아니올시다. 야간단수로 물안나오는 수세식화장실을 사용하던 獨棟의 낙서라는데.

노트구 獨棟 만나 들어보니 "냄새나는 서양식 뒷간이 뭐가 좋다냐. 차라리 우리 푸세식이 낫겠다"하더라.

◇…개나리와 개(犬)나리

경점가고 춘분지나 완연한 봄이라. 새내기들 불에도 싹이 노란 개나리 꽃이 피었다는데.

노트구 알아본 즉, 마셔도 마셔도 줄지 않는 술잔 때문이라고…

방투기, 위장 신고하는 갓 등용된 나리처럼 싹수 노란 개(犬)나리가 피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바이외다.

◇…끼워 팔기 상술은 교양 필수

고향곧 새내기들이, 교양과목을 이수할 의사가 없다는 소문에 노트구 놀라 달려가 보니.

새내기들은 물려 받은 책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며 다만 '끼워 팔기 상술과목'만 거부한 채 교재를 반납했다고.

숫을대문'의 진정한 의미 찾아야

▼옛 사람들은 대문의 규모를 보고 그 집안의 살림살이를 판단했다. 사립문을 세운 집이면 기세가 빈약하고, 돌담에 대문의 형상을 갖추면 중산층, '솟을 대문'을 세우면 양반 대가집임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었다. 각 대학마다 상징물을 세우고 진입로를 꾸며 대학의 얼굴로 내세우는 것은 전승된 체면치레에 젖어있는 까닭인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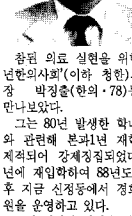
▼수원캠퍼스 조감도에 의하면 정문은 신갈호수 변으로 뻗어있고, 현재 사용하는 교문은 후문에 해당한다. 교수·직원을 비롯한 학생들의 자가용 등·하교가 해마다 증가하고, 유치되는 시내·외 버스의 차량 수가 많아지면서 교문에서 직각으로 꺾이는 도로변에서 hitch-hike에 의존하는 학생들의 사고 위험성이 점차 높아져 왔다. 또 타학교와 비교해 볼 때 내세울만한 상징물이나 진입로가 없는 점 등이 학생들 사이에서 공통 인식되면서 등록금 협상에서 학생측은 현재 위치한 교문 옆에 새로이 정문을 건설할 것과 진입로를 4차선으로 확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고려되어야 할 점들은 첫째, 올 해부터 택지조사사업에 들어가는 영동·영덕지구의 개발범위이다. 이 개발사업에 따라 현 교문 앞 도로가 몇 차선이 될지 어느 방향으로 생길지, 전철은 또 어떻게 유치될 것인지 등 변화될 교통상황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둘째, 조감도의 정문쪽이 앞으로 발전 전망이 있는지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현재 가시화되고 있는 교문의 건설 확충이 재학생의 학교에 대한 자긍심과 위상을 높이고 진정한 대학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정문 건설을 목표로 한다면 단순한 체면치레를 위한 '솟을 대문'이 되지 않기 위해 앞으로 주변 발전 전망과 이용률 등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와 설계가 있어야 한다. 또 정문 건설의 실무자인 학교측과 학생측이 등록금 협상사안의 하나로서 밀고 당기는 협상이 아닌 생활문화개선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밀하고도 실질적인 논의를 가져야 한다.

국민건강 수호하는 참된 의료인

—청년 한의사회장 박정출(한의·78)동문



참된 의료 실현을 위한 '청년한의사회'(이하 청한)의 회장 박정출(한의·78)동문을 만나보았다.

그는 80년 발생한 학내사태와 관련해 본과1년 재학중에 제적되어 강제징집되었다. 84년에 재입학하여 88년도 졸업후 지금 신정동에서 경희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그가 청한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87년 '의료인들 시평작업'에 참여하면서부터이다. 당시 33명이 참가한 이 시평작업이 1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90년도에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된 것이 오늘의 청한이 되었다.

그는 학창시절 한의대 학술동아리 '백단'에서 활동한 이래로 그동안 꾸준히 사회진보세력에 대한 관심이 남달라 요즘도 여러 사회단체들로부터 팜플렛이 많이 배달된다고 한다.

"투철한 직업관이 삶의 지표"

또한 그는 현 '민주동문회'결성의 주축인물이기도 하다.

평소 투철한 직업관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것을 생활신조로 삼고있다는 그는 "개개인 모두가 자기위치에서 사회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때 사회발전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제가 하는 일이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애쓰고 또 그 사실에 만족하려고 노력합니다."라며 성실의 자세를 강조했다.

그는 최근 약사의 한약조제를 합법화시켜서 문제가 되고 있는 '약사법개정'에 관련한 질문에 "이번 조치는 전문영역과 의료정의, 나아가 사회정의에 대한 문제입니다. 한·양방의 영역이 본질적으로 다른데 약학대학에서 주로 양약만을 전공한 약사들이 단 몇개월간의 속성교육만으로 한약을 조제할 수 있다고는 믿을 수 없습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이 약사법개정과 관련해 청한은 여러차례 총회 및 궐기대회를 가졌는데 최근에도 지난 3월 12일 과천종합청사에서 국민건강수호를 위한 궐기대회를 가졌다. 한편 청한은 지난 92년 1월 전국운영위원회에서 가칭 '직업병 전문 한의원'설립추진 계획을 통과시키고 여러차례 준비회의를 거쳐 '산업 재해·직업병한의원 및 연구소 설립추진위원회'를 결성, 활동중이다.

그는 한달에 한 두번씩 모교를 방문하는데, 때때로 보는 후배들의 생활태도에 대하여 "요즘 대학생들을 보면 논리는 정연하게 반해 책임감이 부족한 것같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식의 이기적인 풍조나 사회현상에 대한 피상적이고 감상적인 태도는 유감스런 현상입니다"며 따뜻한 충고를 아끼지 않았다. 또한 최근의 학생운동의 동향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함을 전제로 하면서 일반학생들의 진보운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학자금 대출을 받으신 학생여러분에게!

학자금 대출은 학생여러분의 면학을 돕기 위하여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입학금 또는 등록금을 대출하여 드리고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할상환하는 융자제도로서 국민은행은 보다 많은 학생여러분에게 혜자여윤을 융자해 드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읍니다.

1. 상환방법

구 분	상환기간	상 환 방 법
단기학자금	대출후 1년이내	이때에도정 납입기일에 대출원금의 일부이상을 대출금 전액에대한 이자를 납입
장기학자금	86. 6. 1이전 대출 받은분	거치기간(재학기간) 경과후 5년간 매월 균등분할상환 이자:거치기간중에는 대출금 원금잔액기간중에는 매월 납입
	86. 6. 1~86. 12. 31 대출 받은분	거치기간(재학기간) 경과후 5년간 매월 균등분할상환 이자:거치기간중에는 대출금 원금잔액기간중에는 매월 납입
학자금	86. 12. 32이후 대출 받은분	거치기간(재학기간) 경과후 5년간 매월 균등분할상환 이자·거치기간중에는 매월 매기별 또는 매기별원금회로 납입 ·원금분할상환기간중에는 매월1회로 납입

주)장기학자금 대출을 받으시 보으로 국부무역경자는 입학통지서를 지참하여 대출금 기한 연기절차를 취하시면 군복무기간만큼 기적기간을 연장하실수 있으며 연장후 구부부 기간중에도 이자는 매월 납입 하여야 합니다.

2. 학자금 대출을 연체하시게 되면
학자금대출을 연체하시게 되면 우월으로서는 제때에 회수를 못하게 됨으로 자금의 회전이 어려워지고 따라서 보다 많은 여러분의 학우들에게 융자해여 드리고자 하는 저희은행의 노력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연체이자를 부담하는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3. 학자금 대출을 연체하고 계시는 학생여러분에게
연체계 정리되지 않으면, 학자금대출의 확대받게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한편 일반서민대중이 알뜰히 저축한 자금으로 융자하여 드리고 있는 점을 신분 간연하시어 연체된 점이에 최근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득이하게 연체를 하시는 분은 대출을 받으신 지점에 상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은행

'93 대학 군장학생(장교) 모집안내

1. 지원자격
가. 만21세 이상 대학 1, 2, 3학년 재학생
나. NROTC(장학생) 세부내용 수신처 NROTC 1, 2학년
다. MROTC(장학생) 세부내용 수신처 MROTC 1학년
라. 상경

학 년	연 령
1	1991. 3. 1 ~ 76. 2. 28 출생자
2	1990. 3. 1 ~ 75. 2. 28 출생자
3	1989. 3. 1 ~ 74. 2. 28 출생자

2. 모집인원

구분	계열	전공학과	계열	전공학과
해병	해병	정치외교 기계, 중어, 영문, 불문, 불교, 불교학, 사회, NROTC의 경우 해당과 수여받는 전공학과	보병	정치외교 기계, 중어, 중국, 불교, 불교학 (학년에 해당)
해군	해군	수학, 항공전자, 조선, 물리, 기계	공병	기계
	정보	물리, 전자, 통계, 해양산업	기갑	기계
	통신	전자, 통신, 물리	포병	전자, 통신, 전산
	병기	기계, 금속	방공	기계, 화학, 통계, 전자, 전기
	보급	경제, 기계, 금속, 화학	병	전기, 경제, 무역, 기계, 화학, 생화, 전산
군사	군사	전기, 기계, 생명공학	보급	경제, 경제, 무역, 기계, 화학, 전산
	인사	경영, 경제, 무역	군사	전자, 통신, 전기, 기계
	군수	경영, 경제, 무역, 화학	수송	기계, 금속, 산업공학, 전기
	정훈	사회학, 국어, 사회, 심리		
	의무	의학, 간호학		
	해군	해양, 법학, 행정학과 경영		

NROTC 장학생 해병 항공계열과 지원가능 MROTC 장학생 해병 보병 지원가능

3. 모집방법

구 분	선 발	선 발 방 법
지원서 접수 및 접수	93.3.15(월)~4.8(금)	각 지방병무청 (인천시, 동래, 인천, 전북, 전남 제외)
학과시험	시험일정은 추후	해당학교가 시험시행일정 및 시험방법결정
신체검사 면접	93.4.26(월)~5.1(토)	장기대 지정장소
신원조사 확정		
3차 합격자 발표	93.5.28(수)	장기대에 게시
최종합격자	93.7.30(금)	장기대에 개별통지 (중도
입 영	1학년:93년도 2학년:92년도 3학년:91년도	해군교육대장

4. 제비뽑기

	1차시험(필기시험)	2차시험(체력검정 및 면접)
지원자 및 제비뽑기	2명	제비뽑은 사람 1명
호명되면 첫 번째 응답한 사람	2명	첫 번째 응답한 사람 1명
고사장 배정기준	1차	1차 합격자 제비뽑기
번호	1~5번	1번

5. 면접일자

구 분	내 용
1	1차
2	93~.5월초
3	93~.6월초
4	93~.7월초
5	93~.8월초
6	1차 (1차시험 및 2차 시험 동시 이내)
7	93/SMMC~93/SMMC
8	준전형 고려한 면접 방법
9	1. 일 일
10	2. 월 일

해 군 본 부

박물관 정기개관 및 VIDEO상영 안내

중앙박물관에서는 학생들의 문화재에 대한 관심과 학술자료로서 이용을 돕고자 하여 정기개관을 실시합니다.

1. 개관날자:1993년 3월16일부터 매주 화·수요일
2. 개관시간:13:00부터 16:00까지
3. 휴관:방학과 시험기간중 휴관, 단 휴관시에도 학술자료는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VIDEO상영
가. 일시:개관시
나. 편수:하루2편식 상영
다. 내용:역사, 민속자료
라. 장소:박물관 세미나실
*원하는 자료 선택해서 볼 수 있음(목록은 박물관 연구실에서 비치)

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장

한국과학재단 사업지원 설명회

일 시:1993년 4월7일(수)
14:00~16:00
장 소:체육관대학관 2층 세미나실
연 사:한국과학재단 연구기획부장
내 용:한국과학재단 중요사업 안내
·일반목적 기초 연구지원 사업
·특정목적 기초 연구지원 사업
·Post-Doc 연수지원 사업
·국제협력 연구지원 사업

수 원 캠 퍼 스 연 구 처

'94 학군 사관 후보생 모집 (R.O.T.C)

●모집인원:○○○○명
●지원자격
·93년도 4년제대학 2학년 재학생
·71년 1월일~76년 3월1일 출생자(18세~23세 미만)
·장교 임관 결격사유 없는 자
●지원서 교부 및 접수
·기간:93년 3월일~4월20일(학군단본부)
·구비서류

지원서 및 서약서	신체검사시
지원서 및 서약서 ……1부	호적 및 주민등록등본
대학입학 및 1학년 성적증명서 ……1부	……각 1부
고교 생활기록부 사본 …1부	시진(4×5㎝) ……2매
사진(4×5㎝)……1매	

●선발:대학성적, 신체검사, 체력검정, 인물검사, 품성평가
●합격자발표:93년 12월3일
●문의처:각 대학 학군단 본부

육 군 본 부

'93 대학 장학생 모집 (학군·학사사관)

1. 모집인원:1학년(○○○○명), 2학년(○○○명)
2. 지원자격:4년제 대학
①1학년(71년 1월1일~77년 1월1일 출생자)
②2학년(70년 1월1일~76년 1월1일 출생자)
3. 지원서 교부 및 접수
①기 간:93년 3월1일~4월20일(학군단 본부)
②구비서류

1차(서 류 심 사)	2차(신체검사시)
·지원서(사진첨부), 서약서 ……각1부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각1부
·대학입학 성적증명서 ……각1부	·재학보증서 양식 입증증명서 ·각1부
	·사 진(4×6㎝) ……2매

4. 선발절차
①1차:서류전형(입학 및 대학성적), 면접, 체력검정
②2차:신체검사
5. 합격자 발표:93년 8월10일

육 군 본 부

중앙박물관 공개강좌 및 관람안내

1. 중앙박물관에서는 국내·외의 역사적 유물과 민속품을 수집, 보관하고 여것들을 전시하여 학생 및 일반인들에게 관람케하고, 학술연구와 우리 선조의 전통문화와 유물을 이해시키기 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본관 소장유물을 중심으로 시청각기재(환등기, 비디오테이프)를 활용한 공개강좌와 전열실 개관을 하고자 하여 귀 교수님의 강의시간(교양국사, 문화사)중 원하시면, 편리한 날짜와 시간을 선택, 통보하여 주시면 사전에 준비하여 관람토록 해 드리겠습니다.

가. 제목:슬라이드, 비디오 상영 및 진열실 관람
나. 내용:1)슬라이드:본관 소장유물을 중심으로 설명
2)비 디 오:역사, 민속자료
다. 장소:박물관 세미나실 및 전 진열실(도서관4층)

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장

교 회 안 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과 늘 같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직 신앙생활을 못하시는 분이나 지방에 교회를 둔 분들은 본교회에 오셔서 구원받으시고 교회봉사(성가대·교회학교교사)에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위치)
경희의료원 6층 본관과 별관사이

(예배시간)
주일아침: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주일저녁:매주일 오후 7시
삼일저녁:주요일 오후 7시
대학청년부:매주일 오후2시30분

성지에서온 교회(의료원 6층)
전화 966-4812 교육관 959-4134